‘아동교육’ 접목한 어린이 법회 재개

통도사, 9월 10일부터 매월 두 차례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19 팬데믹 해제 따라
프로그램 새로 기획해 제공
숲 체험·명상·예술 등 다양
초등생 대상…1·8월은 방학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중단했던 ‘통도사 어린이 법회’를 재개하고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통도사는 그동안 ‘건강하게 놀자’는 주제로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법회를 중단했으나 완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이번에 새 출발을 알렸다.

특히 통도사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정비한다. 통도사는 지난 6월 30일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통도사 포교국장 혜명 스님과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학과장 혜명 스님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학과장 혜명 스님은 “동국대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불교아동교육연구소’가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 학생들은 아동과 함께 하는 현장경험을 쌓고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혜명 스님은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협약을 통해 통도사를 찾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통도사 어린이 법회 ‘건강하게 놀자’는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 이소정 연구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교육학과’에서 동참 지도한다.

이에 따라 기획한 프로그램은 △숲 체험활동 △명상놀이 △창의력 예술활동 △문화와 놀이 등이다. 숲 체험활동은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뛰어 놀며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해 창의성과 감정을 일깨우는 활동이다. 아울러 자연체험을 통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명상놀이는 온몸의 감각을 깨우고 관찰하는 활동이며 신체를 자유롭게 표현해 창의성과 감성을 기르도록 돕는다. 어린이가 편히 명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을 활용해 감수성 개발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창의력 및 예술 활동은 자연과 친숙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며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문화와 놀이는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체험하고 강강술래 및 제기차기 등 전통 전래놀이 경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영축총림 통도사가 2018년에 진행한 어린이 법회.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며 법회는 9월부터 매월 2, 4주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법회 시작일은 9월 10일이다. 점심식사는 사찰에서 제공하며 매년 1월과 8월은 방학이다. 법회 장소는 통도사 경내 ‘문수법당’으로 경내 일원에서 자연 체험활동이 이어진다. 신청방법은 통도사 홈페이지 어린이 법회 모집 안내 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sj2671640@gmail.com)로 보내면 된다.

통도사 어린이 법회 동참 학생들은 졸업 후 중·고등부 활동 단체인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통도사는 “이번 어린이 법회 재개를 계기로 불교의 미래가 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통도사 산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055)382-7182

“성숙한 부모가 아이 성적 부담 낮춰”

범어사, 수능기도 입재 맞춰 토크콘서트 개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사찰이 일제히 수능 100일 기도를 시작한 가운데 올바른 기도법을 안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는 8월 9일 범어사 선문화관 2층 카페에서 ‘아이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콘서트에서 수능시험 전 남은 기간 갖춰야 할 부모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눌은 스님은 200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북지역 수석, 언어능력 부문에서는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눌은 스님은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성숙함이다. 행복을 위해 자녀를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출가 전과 이후에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성공이 아니라



고 강조하고 싶다”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더욱 현숙하며, 성공과 실패의 순간에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학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부모는 자녀가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임을 인지해야 하며 자녀의 모습과 결과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성숙한 기도 목표를 갖추고 일상이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으며, 주지 보운 스님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출·재가 명상 보급 ‘전초기지’ 일익

부산불교교육대학, 9월부터 다채로운 강의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센터로 탈바꿈한다.

먼저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은 스님들을 위한 명상지도자 과정을 마련한다. ‘승려명상지도사’ 양성과정은 9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강사는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가 담당하며 강의 이수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붓다볼 명상지도사를 취득하도록 돕는다. 개강식은 9월 7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강의실에서 오후 3시에 열리며, 이후 수업은 부산 두구동에 위치한 (사)싱잉볼치유의소리 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재가자를 위한 명상은 행복선(禪)명상센터가 담당한다. 개강은 9월 13일 오후 7시 합동입학식과 함께하며, 강의는 행복선명상센터장 하림 스님이 담당한다. 하림 스님은 〈대념처경〉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명상법을 습득하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모집인원은 총 60명.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다채로운 강좌를 개설해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과목은 기초교리학과, 불교문화학과, 부동산융합풍수학과다. 기초교리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강사는 학장 범혜 스님이다. 불교문화학과는 불교문화포교사(금요일), 불교문화 전문지도사(월요일)로 나눠 진행되며, 부동산융합풍수학과는 매주 화요일 수업 예정이다.

학장 범혜 스님은 “현대인들의 마음건강과 행복을 위해 명상 강좌를 개설하고 명상센터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며 “도심 속에서 스님들과 재가자들을 위한 명상힐링 센터로 앞으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Weekly in 자비나눔

낙산사, 문화연수원 복구에 1억 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복구에 양양 낙산사 대중이 뜻을 모았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을 비롯해 총도감 청현 스님, 각 국장단 스님들은 8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수해복구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도 함께했다.

한국문화연수원은 지난달 중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공주지역은 누적 5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현재 연수원은 시설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얼마 전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찾은 경북 예천을 언급하며 “여러 교구본사들의 도움으로 수재민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조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수해지역을 찾아 기금을 전달한 모습이 귀감이 됐다”며 낙산사도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월정사, 종단 불사·수해복구에 1억 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종단 핵심사업과 얼마 전 충청이남 지역에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희사했다.

월정사 총무국장 인광 스님과 재무국장 덕엄 스님, 원주 구룡사 주지 해공 스님, 오대산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이 같은 성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가 종단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며 월정사의 단기출가학교 운영현황을 물었다.

이에 인광 스님은 “회당 40명, 연간 80명 정도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참가자 중 350명 정도 출가할 정도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단 차원의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 세계 명상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월정사의 노하우가 많으니 명상 보급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선운사, ‘천년을세우다’ 4000만 원 기탁

조계종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 본·말사가 종단 역점사업인 ‘천년을세우다’에 기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8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재)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세계잼버리대회에 한국불교를 알린 선운사와 내소사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종단불사를 위해 더 큰 도움을 보탤 수 없어 죄송하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선운사는 전주신도시에 나온 종교용



지를 본·말사가 힘을 모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신도시 포교를 위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진우 스님은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교구본사들이 사람 많은 곳으로 활발하게 진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불교중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